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문국진이 자수한 지 3일 후 건대학생들이 청경에 3, 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옴).

중간에 정신병원(중곡동정신병원, 청량리정신병원)에 경찰과 갔었으나 의사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성기를 몇 차례 움직여본 뒤 별 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냄(이때 문국진은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자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감.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한편 북부 검사가 부모에게 각서를 요구(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한 후 부모가 각서를 쓰자 병원으로 보내게 함.

자수한지 1달 반 정도 후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졌으며 곧바로 입원되고 관비로 담당의사 최용성 씨에게 의뢰됨. 최용성은 서울대 출신으로 같은 중앙중학교 선배라면서 잘 대해주었고 부모에게 성장과정 등을 묻고 “숨어서 맘이 불안하니까 병이 난 것 같다”고 했으며, 부모가 병든 애를 빨리 빨리 처리하지 않고 병이 날대로 나게 했다고 했더니 의사는 아무 말도 안 함.

청경에 있으면서 문국진이 윤연옥을 계속 찾자 어머니가 자의적으로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자를 시켜 “윤연옥에게 급한 불일이 있다. 문국진이 좀 보자고 하더라”며 계속 전화를 함.

이후 윤연옥의 집에 형사가 계속 거주했고, 언니네 집까지 찾아와서 윤연옥을 찾아내라고 욕박질렀으나 윤연옥은 성남에서 현장생활을 계속 했고, 1987년 8월말경에 문국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한양대 근처 카페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처음 대면함. 그 당시의 상태도 안 좋았으며 자꾸 골목으로 들어갔음. 이후 이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형사들이 너를 미행할까봐 따돌리려고 했다고 함.

1달 후에 만났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며 한 장소에서 오래 있지를 못함. 다음날 운동권 노래책을 갖다주기로 하고 자신의 병실생활을 한번 보라고(당시 외래치료: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서 출퇴근하듯이 하루를 병원에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면서 치료받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입원했다고 함. 그날 윤연옥은 담당의사 최용성을 처음 보았으며, 그의 말로는 윤연옥 씨가 어려모로 문국진 씨의 위로가 되어 치료에 많은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음

최용성 씨는 문국진 씨가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을 할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경을 말함.

이후로 한해에 한번씩 재발이 되었는데, 1989년 입원할 때는 이틀동안 잠을 안잔 상태로 당시 다니던 출판사에 출근했으며 밤에는 책상에 앉아 손목시계만을 들여다 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난폭해져 쿵쿵거리며 방을 돌아다니고 창문을 열어제끼고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어떤 애기든 해달라고 하며 잠을 못자게 함

1990년 입원할 때는 입원하기 1주일 전쯤 회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 "이혼하자"고 함. 밤에 들어온 문국진에게 아내가 이혼의 이유를 묻자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조용한 카페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건 나다. 내가 왜 너를 안기부에 보고하겠는가"라고 하자 눈알을 돌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음. 그 상태에서도 진실은 통했는지 문국진은 이혼얘기는 거두겠다고 함. 이후 전화가 도청되어 있으니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했으며,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장소를 옮기며 불안해 함(경찰이 미행한다고 생각함).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목을 조름. 부인은 생후 7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와 피했다. 문국진은 다음날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도 한동안 여기가 치안본부냐 나를 고문시킬 거냐 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했음.

1988. 9. 10 : 결혼

1989. 10. 12일 초: 동서문학과 7개월 다니던 중 재발, 문국진, 문국진, 문국진에게

1990. 2. 28 : 첫 출산

1990. 10. 10 : 1991. 11월 : 안기부 부속 : 이혼을 하게 됨

1991. 5. 25 : 안기부 부속 : 문국진, 문국진, 문국진

***결혼 후 이사할 적마다 관할서에서 1번씩 찾아왔으며 최근 3년간은 직접 찾아오지 않다가(주인집에 근황을 물어봤을지도 모름) 1993년 4월 21일경 청경 보안2계 이문3,1동 담당 홍세균 씨가 찾아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청경에 김낙현 씨(청경 때 담당형사)가 아직 있는데 얼굴 부딪히면 서로 밋할 것 같아 자신이 찾아 왔다"며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 문국진이 "수배당하면서 난 병이다. 국보위에서 난 병"이라고 하며 애써 적개심을 감추자 "비판적으로 살지 마라. 운동해도 좋다. 아 개운하다. 개운하다. 한번은 꼭 만나보려고 했다"고 말한 후 돌아감. 그후 이틀동안 문국진은 잠을 자지 못했음.

병명: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인간관계 망상, 편집증.

1980. 3,4월경: 반공법으로 서대문서 구속, 1년 형 2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3개월 만에 나옴.

1986.3.25: 다산,보임사건 이후 수배

1986.10말경: 청경 자수 구속, 정신질환 발병.

1986.11말경: 정신분열증으로 중국동 국립정신병원 입원(관비)

1987.8~10: 중국동 국립정신병원 재입원

1988.9.10 : 결혼

1989.10~12월초: 동서문화사 3개월 다니던 중 재발, 중국동 국립정신병원에 재입원.

1990.2.28: 딸 출산.

1990.10~1991.3, 1991. 11~4: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한울 5, 6개월 다니던 중 재발)

1993.6.26: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

- 문국진씨가 입원하기 3일 전(1993.6.23 水) 아내에게 쓴 편지 -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속의 고독', '절대적인 실존을 나날이 체험하는 세월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나무에 대해 강제로 교묘히 심어지는 불신!'

헤! 암울했던 어둠을 불사르고 또다시, 그리고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鐵의
영원과도 같이 느껴지던 그 암흑의 시간, 그것은 동터오르는 노동자의 또 다른 힘찬
출발과도 같이 해처럼, 드디어 밝아오르는 해처럼 우리의 암울·참담·처절(!) 그리
고 절대적 고독을 물리치고 이제 또다시 떠오릅니다.

동지!

나의 숙명과도 같은 동지여! 이렇게 처음 불러봅니다. 이제 당신은, 000라는 虛像을
쫓지말고 마침내 몸을 일으켜 세운 폼추의 일어섬 같은 인간 문국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고뇌하는 예수', 산장에
서 밤세워 피땀흘리며 하느님께 "주여! 하옵시면 이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에
원하며 매달리며 십자가의 고난·고통·창피·수치스러움을 회피하기를 원했던 '인
간의 아들 예수!'와도 같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미물이올 따름입니다.
개인은 한없이, 한량없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신이 가진 그 모
든 소중한 것들! 부디 당신은 고통을, 인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스스로 온 몸으로
깊이 체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 문국진이라는 처절한 인간의 고뇌와 육체적, 전(全)존재적 고통속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개(犬)와 같은 존재일 것이요.
인간(男)과 인간(女)이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소. 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는? 당신과 나의 이 순조롭지 못한 세월들!

우리는 무한히,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스스로를 혼
련·단련·강화·발전·성숙시켜야 하오. 발전없는 삶은 퇴보일 뿐이오. 직장생활!
— 할 말이 없소. 그러나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하오. 그것을 확보해야 하오. 스스
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삶의 여유의 시간을! 박노해의 시에 자본주의적 장시간 노
동으로 인한 남녀의 고통, 노동자의 사색의 박탈을 그린 시가 있소. 우리는 자기 시
간을 확보해야 하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고통은 개개인의 몫이 되므
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없는 삶의 굴레, (당신은 누구 못지않게 지금까
지, 힘들고 벅차고 무거운 역사의 굴레를 온몸으로 버텨온 존재임을 항상 잊지마
오). 아 우리의 생명,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아있다는 것 만으로도,
물고문으로 숨직한 순간 또는 전기가 생체를 관통하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구려. 당신은 아직도 이 동터오는 새벽의 시대에 암울 속에 갇혀 있는가요?

드디어 새벽 5시. 주홍색빛 태양이 옥상위 주텍가 지붕 너머로 제 모습을 드러냈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소, 당신의 암·울·함·앞·에·서.

고통과 고뇌 그 한가운데 있는 實存 앞에서 그 누가 무슨 말, 무슨 위로의 말을 하리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간다는 것. 지금 나는 책 ①마르크스 사상, ②진정한 인간. 진정한 인간 공동체, ③社會世態에 관한 에세이 =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 모든 잘못, ④참된 인간像, 인간관계, (=同志愛), 우리의 이상의 구현태로서의 사회상 등 글로 표현해야만 할 것들이 많소. 물론 나 자신 아직 스스로 다듬어지지 않은 (당신 말대로) 유약한 '인텔리'임은 분명하오. 그렇지만 내가 믿는 믿음 한가지,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변화한다. 아니 변화할 것이다! 아니 변화, 스스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오.

부디 내곁에 있어주오, 내곁에

- 부드러운 당신에게 -

1993.6.23.水

문국진의 아내가 드리는 글

남편과 결혼한 지 어언 6년째, 얼마전 남편이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을 얻게 된 당시를 상기하며 이 글을 써내려 가지니 복받쳐 오르는 울분과 격앙된 감정을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미 병들어 있던 1987년, 처음에는 그와의 결혼문제를 두고 울기도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안고 사느니 함께 부딪히고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생각한대로 결혼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 한 때는 저희도 서로에게 애뜻하고 작은 평화로움을 느끼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투병중에도 운동의 의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필하는 생활을 했으며, 저는 앞날에 대해 희망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직원 100여명 정도로 이루어진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잦은 야간작업 등 열악한 작업 조건때문에 사내에서 노조 결성문제가 거론되자 남편은 신경이 무척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에서 나에 대한 압력을 회사에 넣고 있는 것 같다.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나에 대해 보고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이를밤을 못자고 나더니 점점 난폭해져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되리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었기에 어찌보면 답답했습니다.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만이 쏟아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은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재발되어 입원할 때마다 회복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증세도 심해져, 입원 직전마다 더욱 난폭해졌으며 광란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저의 답답했던 심경은 생활고와 거듭되는 남편의 입원으로 점차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1990년 딸아이가 생후 7개월 되던 해 남편은 또 다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중곡동 국립병원에 병실이 내려면 1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어린 딸아이가 보살펴야 했던 저는 점점 난폭해지는 남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발병할 때마다 그랬듯이, 고문 당하던 시점으로 정신이 돌아, “내 행동을 안기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도청이 돼 있을테니 전화는 밖에서 하라”는 등 극히 불안해하다가 급기야 저까지 의심하는 상태에 이르러, 자려고 누워 있는 제 목을 졸랐

습니다. 저는 어린 딸을 안고 초겨울에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왔고, 다음날 동네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면회할 수도 없었고, 우리 세 식구가 살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그해 남편은 무척 긴 입원을 해야만 했고 회복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때 연대 동문·동기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고 1년동안 생활비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생활 자체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대 동기이신 곽진선씨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위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어린 딸아이를 맡기고,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아는 직장 동료들의 위로가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기에, 지친 삶이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몸을 추스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열사추모제'를 보고 나서 남편은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달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밤새워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고통은 이미 저의 고통이 되었고, 남편의 한맺힌 삶은 이미 저의 한맺힌 삶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청춘을 이렇게 파괴시켜버린 1980년대 국보위·안기부·치안본부, 그 무서운 고문의 현장과 은폐된 살인행위들! 저는 남편의 문제가 진상 규명되어,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1993. 7. 7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 1호

1993년12월10일/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전화: 796-8364, 5팩스: 796-8366

<소식지를 발간하며>

문국진과 그의 가족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눠 줄 수 있는 모임으로

박 정 기(대표/박종철열사 부친)

다시 겨울입니다. 저에게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아픈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7년전 겨울 강가에 자식의 뼈가루를 뿌려야 했던 아픈 기억을 나는 이 겨울에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7년 세월이 지났고, 그러나, 나의 자식이 그렇게 비명 횡사를 했고, 많은 이들이 고문 철폐를 외치며 싸웠지만, 그 이후 이 나라에서는 고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권에서도 심지어는 문민정부라 하는 현 정권에서도 고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문은 저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유력한 한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 겨울 정신병동에서 가족과 헤어져 심지어는 다섯살 박이 딸과 헤어져 병마와 싸우는 문국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그의 아내와 가끔은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울곤 할 그의 딸을 생각합니다. 한때의 고문으로 그토록 영민하고 가능성 있는 한 젊은이가 철저히 파괴되어 가도록 나는 무엇을 했고,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또 최영미 학생과 같이 안기부에 끌려가 13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 가련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김복영이란 학생은 이제 기억마저 상실되는 현실에 처해 있을 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의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한 일들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떠들면서도 이번 유엔 총회도 그냥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비록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고문이 갖는 심각성, 더우기 고문 후유증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일들을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고문이 추방되고 더 이상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를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문국진과 그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얻어 당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이 자그마한 소식지가 회원과 회원, 모임과 모임을 연결하고 점차 대중적으로 고문 문제를 홍보하고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늘 미약하지만, 함께 가노라면 우리는 기필코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게 보내시고, 늘 문국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여뜻

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

아랑도

한스런

가는 채

우이

문국진, 지금은

감정상태도 많이 안정되자

문국진씨의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기분상으로 우울증에 많이 가셨고, 치료도 의사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간호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직후 상태가 더 악화되어 많은 걱정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면회를 한 문국진씨의 처

부인

윤연옥씨가 전했습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 Clozapin(크로자핀)이라는 새로운 약을 바꾸어서 투약하고 있는데, 이 약은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약으로 미국에서는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가며 그 적응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투약후 8주간은 그 효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 두달간은 현재의 고대 부속 구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르

현재는 6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생하는 부인 때문에 눈물을 짓고,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있다고 전화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12월 10일 현재 신체감정일이 12월 14일로 잡혀졌고,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법원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병원을 옮길 경우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금 있는 고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변호사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갈 소식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문국진씨의 근황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회사는 남극기씨로

문국진씨와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거리는 벌써 연말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연말 결산이다. 송년회다 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말연시가 더욱 우울한 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만 쫓겨 자칫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연하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때 꼭 잊지 말고 문국진씨와 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장의 편지나 엽서, 카드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한장의 엽서가 문국진씨와 그 가족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 주소 ❁
(우편번호 130-083)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3동 226-19~~ 윤연옥

취계동 140-38 20동31반

❁ 인권운동 사랑방 주소 ❁
(우편번호 120-14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고문 후유증의 사례(1)- 최영미씨의 경우>

안기부에서의 11시간, 12년간의 고문후유증

12년째 고문에 의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다. 지난 10월 16일 한겨레신문과 10월 15일자 노동자신문에 실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최영미씨는 81년 6월 10일 인천대헌공전 1학년에 재학중 안기부 인천분실(인하공사) 지하 취조실에 끌려가 11시간동안의 조사를 받고 나왔다.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가공할 공포정치를 휘두르던 때였고, 가장 많은 간첩 조작사건이 만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했다. 최영미씨의 경우는 황해도 출신인 그의 부모님이 일본에 살던 딸의 박람회 초청으로 20일간의 예정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본으로 떠난 다음 날 인천분실 소속의 수사관 3인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11시간동안 “부모가 왜 일본에 갔느냐”며 최씨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면서 다그쳤다고 한다.

그날 오후 7시경 연락이 와서 그의 오빠가 데리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오빠의 질문에 겁에 질려 창백한 상태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는 후 1달이 지나고부터 최영미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들어온다며 문을 잠궈놓고 쭈구리고 앉아 있고, 2층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달고 동맥을 끊고 수 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최씨는 “살아서 뭘 하느냐 죽고 싶다.” “그놈들이 너 여기서 있던 일 발설하면 너희 식구들 다 몰살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 식구들 모두 죽일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한다. 최씨가 하도 괴로와하기에 한번은 어머님이 최양을 데리고 안기부에 갔다온 일도 있었고, 검문하는 직원도 최씨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런 후 82년 2월에 첫 발작을 일으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악을 쓰고 부수고, 집을 뛰쳐나가 안기부 앞에서 옷 벗고 앉아 있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데려 왔는데, 당시 최씨는 “3명중 두 사람은 나이가 먹었고 유독 한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며 악을 썼다고 한다.

그런 후 1년에도 몇 차례씩 발작을 일으켜 20일에서 3개월씩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더 이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족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85년에 최양의 아버지 이름으로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고, 그런 후 안기부 직원이 와서 좋은 회신이 올 것이라고만 말을 했고, 그후 아무런 조치도 없자 그의 아버지는 환병으로 86년 6월에 환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후 87년 7월 다시 어머님 이름으로 청와대에 탄원을 하였고, 그 일로 안기부 직원이 찾아와 보상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최영미씨의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하였고 진정과 탄원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자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리고 안기부 직원은 주안에서 20년 동안 약국하던 사람이 간첩이었다고 말하며, 최양 부모가 일본에 갔길래 조사해 봤다고 말했는데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 이후 92년 10월말까지 관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5년동안 2번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후 92년 최영미씨를 단독 세대주로 의보 처리되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의보증이 회수가 되었고, 치료비가 끊긴 상태가 되었다. 안기부는 그후 관비 처리해 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으며 오로지 그녀의 치료는 가족의 부담으로만 남게 되었다.

최영미씨는 현재 치료비도 없고 치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서 거의 치료를 포기한 상태이고, 최영미씨는 한글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요즘도 종종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유일한 소일거리는 라디오 음악방송에 엮서 보내는 일이고,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나가고 약타러 가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5월에 치료만 해달라고 탄원을 냈고, 목요회의 도움으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하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군사정권에 의해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 치료비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안기부가 치료비를 대준 사실조차도 발뺌하는데 기가 막혀 하고 있다.

첫 재판 열려

지난 11월 18일(목) 오전 10시 문국진씨의 민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약 20명의 방청객의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담당판사는 민사13부 조흥은, 김수천, 성기호 판사이다.

우리측 주심 변호사인 백승헌 변호사가 소송 자료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서 정부측 소송 대행자인 청량리 경찰서 소속 경정 안승환, 경감 조수형, 경사 박동열등 3인의 명의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중 경사 박동열은 문국진씨 수배 때부터 청량리 경찰서에 있던 경찰로 부모님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직접적으로 문국진씨의 수사를 담당한 김낙현 형사는 지난 8월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소송 대리인 2인은 청량리 경찰서에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조사과정에서 일체의 가혹행위가 없었고, 수시로 부모등 보호자의 면회가 가능했으며, 조사중 발작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으며, 자수 이전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원고(문국진씨측)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증거 자료로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부모 진정서, 원고 자수 검거보고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서등이며, 이들 경찰측 자료를 볼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우리측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하나 분명히 밝혀진 것은 문국진씨가 자수한 날이 부모님의 기억과는 다른 86년 10월 27일로 건국대 사건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원고측에서는 정신감정서를 작성해준 배기영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원고 신체감정 신청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타의 증인 신청은 답변서등 자료 검토후 추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미정이며, 신체감정은 12월 14일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최의팔 부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시 사건 관련자 8명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 청원은 변호사 30인, 의사 13인, 재야인사 30인, 기독교 250인, 천주교 24인, 불교 15인, 여성단체 90인, 일반시민 473, 연대생 150인등 12월 1일 현재 1,134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인권주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는 준비의 부족과 일정상의 문제로 오는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고 박종철 열사의 추도식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사가 확정되면 이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가지려던 문화공연은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는 12월 21일(화) 오후 7시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조출한 송년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국진씨의 가족과 대표, 실무자를 비롯한 회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문국진씨의 가족을 위로하고 회원들과 우리 모임의 사업을 의논하게 될 작지만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금 문제♣

신체감정을 받게되면 최소 400만원의 돈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원은 회비를 내주시고 동봉하는 회원 가입서를 적극적으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은행구좌>

주택은행 420802-92-1041167 문국진 국민은행 027-21-0568-670 문국진
상업은행 126-08-171760 문국진 조흥은행 371-06-147478 문국진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취지서>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중에 몇몇 사건은 이미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기의 고문의 실상과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는 당시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국진동지가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후유증을 자신과 가족의 몫으로만 여겨 왔고, 사회와 정부에서 방치해왔음을 알았고, 이에 우리는 문국진 동지의 쾌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고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3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류문명의 최악이며, 가장 추악한 적이라고까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고문방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추악한 고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은 남아 있으며, 문국진 동지와 같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다수라는 사실 앞에서는 정부의 고문 근절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였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려 처벌하는 일과 아울러 고문을 일삼았던 기관의 민주적인 개폐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고문을 당했던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및 고문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고문문제라고 해서 단지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룸으로서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문국진' 과 함께하는 모임] 첫발을 내디디며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없는 삶의 굴레.
아! 우리의 생명,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고문으로 숨막힌 순간 또는 전기가 생체를 관통하
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
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구려.
당신은 아직도 이 동터 오는 새벽의 시대에 암을 속에 갇혀 있는가요?”
(1993. 6. 23. 문국진 씨가 아내에게 쓴 편지 중에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폭로된 부정과 부패가 과거 군부독재정
권 아래서 이 사회의 한 단면이었다면, 바로 그 뒷면에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
배, 구속, 고문, 타살, 분신, 의문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
습니다. 이 두 단면은 서로 뿔레야 뿔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정과 부패'라는 역사적인 현실은 권력유지의 필요성때문에 부분
적으로 폭로되고 있지만, 수배, 구속, 고문, 타살, 의문사 등은 역사의 '기억' 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 고통은 이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질머지고 가야할
것으로가 아니라, 한 개인의 혹은 한가족의 상처와 멍에로만 남고 있습니다.
문국진 씨의 '고문피해'는 사실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대 구로부속병원 10층 정신병동에 3개월 넘게 입원해 있
는 문국진 씨는 15년 전만하더라도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으로, 이 사회의 근본
적인 민주화와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지식인의 임무에 대해 고민
하던 충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등장은 이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습니다. 198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때, 프
락치활동을 강요하는 치안본부 형사들의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은 이 청
년의 육체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까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후 86년까
지 출판사 편집장 일을 하면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갈갈이
찢긴 내면의 상처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여, 86년 '보임. 다산 사건'으로 구속되었
을 때, 심리적 압박과 3일간 잠안재우는 조사와 구타와 독방 감금으로 '정신 질
환'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단지 개인적인, 혹은 가족의 불행
으로만 여기는 사회적인 통념과, 80년대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후 여
섯 차례에 걸친 '정신질환'의 재발과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모든 고통을 문
국진 씨와 가족들이 소리없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정신분열, 피해망상, 편집증' - 이 모든 병세는 분명 군사독재정권이 한 청년의
삶에 가한 고문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고문은 단지 문국진 씨 개인만을 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
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국진 씨의 '정신 질환'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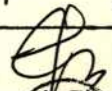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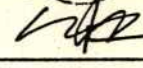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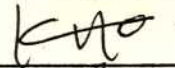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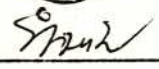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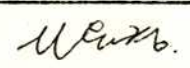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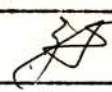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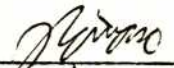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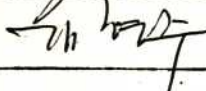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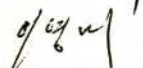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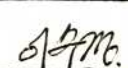

오늘 우리가 문국진 씨에게 새롭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한 개
인의 불행과 고통에 동참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국진 씨의 고통과 불행을 외
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으로 우리는 문국진 씨의 고통
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문국진 씨를 고문하고 그의 삶을 분열시킨 '국가'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
고자 합니다. 문국진 씨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회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국진 씨가 자신의 '정신 질환'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질
병'을 치유해 나갈 주체로 다시 나설 수 있을 때까지 '문국진 씨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야만적인 고문이 더 이
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국진과 함께하려는
오늘의 첫걸음은 단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
화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려는 노력은 바로 우리 자신
의 '미래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이리근 | | 이리근 |
| 박오승 | | 박오승 |
| 황수자 | | 황수자 |
| 이문영 | | 이문영 |
| 송지향 | | 송지향 |
| 정향숙 | | 정향숙 |
| 박상훈 | | 박상훈 |
| 이흥국 | | 이흥국 |
| 김부래 | | 김부래 |
| 김명숙 | | 김명숙 |
| 방성심 | | 방성심 |
| 송선아 | | 송선아 |
| 박정선 | | 박정선 |
| 박수미 | | 박수미 |
| 임현국 | | 임현국 |
| 이연희 | | 이연희 |
| 정해근 | | 정해근 |
| 심현우 | | 심현우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지관건 | |  |
| 이종완 | |  |
| 김신비 | |  |
| 김영옥 | |  |
| 남광우 | |  |
| 김혜숙 | |  |
| 유재소 | |  |
| 이성미 | |  |
| 김형미 | |  |
| 안구진 | |  |
| 신유경 | |  |
| 원유미 | |  |
| 권재홍 | |  |
| 강광진 | |  |
| 가혜규 | |  |
| 이영미 | |  |
| 이수경 | |  |
| 김은경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권영석 | | |
| 김왕 | | |
| 오지철 | | |
| 최유경 | | |
| 김근아 | | |
| 보영숙 | | 牟英淑 |
| 소원영 | | 蘇元永 |
| 박가숙 | | 朴己淑 |
| 이근원 | | |
| 김애 | | 김애 |
| 박진희 | | P. J. H |
| 이흥선 | | 이 |
| 이서희 | | 이서희 |
| 이동철 | | |
| 윤희 | | 윤희 |
| 김정순 | | |
| 배미자 | | 배미자 |
| 김수강 | | 이준 김수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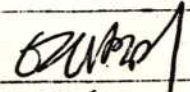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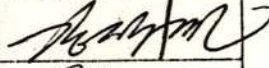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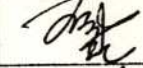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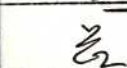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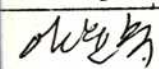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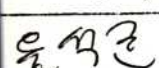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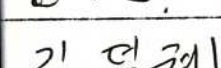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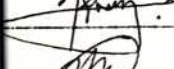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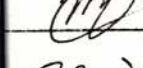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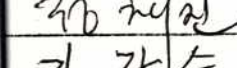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지동찬 | | 지동찬 |
| 연기남 | | 연기남 |
| 권성걸 | | 권성걸 |
| 박희 | | 박희 |
| 김명일 | | 김명일 |
| 이준희 | | 이준희 |
| 오미연 | | 오미연 |
| 홍재홍 | | 홍재홍 |
| 노상욱 | | 노상욱 |
| 신삼진 | | 신삼진 |
| 원영석 | | 원영석 |
| 김준호 | | 김준호 |
| 곽재홍 | | 곽재홍 |
| 김기아 | | 김기아 |
| 박진희 | | 박진희 |
| 이경구 | | 이경구 |
| 장조영 | | 장조영 |
| 백승권 | | 백승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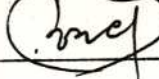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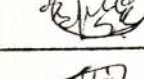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김혜철 | | (5) |
| 최정여 | | (4) |
| 신완순 | | (신완순 43) |
| 이승영 | | 19 136 14.11 |
| 송기문 | | 송기문 |
| 김경화 | | 김경화 |
| 최호성 | | (최호성 99.11.11) |
| 이정석 | | (이정석) |
| 김종식 | | 김종식 |
| 김현영 | | 김현영 |
| 최영주 | | (최영주) |
| 장수현 | | (장수현) |
| 김예라 | | 김예라 |
| 김민호 | | 김민호 |
| 김민우 | | (김민우) |
| 이철 | | (이철) |
| 박용영 | | Tom |
| 김영남 | | (김영남)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연병이 | |  |
| 강옥진 | |  |
| 김장훈 | |  |
| 김광수 | |  |
| 여운숙 | |  |
| 안운숙 | |  |
| 윤서연 | |  |
| 김덕권 | |  |
| 김현희 | |  |
| 김현희 | |  |
| 조미향 | |  |
| 김옥련 | |  |
| 정채진 | |  |
| 김장순 | |  |
| 박진호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최익림 | [Redacted] | 최익림 |
| 김해성 | |  |
| 김형의 | |  |
| 김희금 | | 김희금 |
| 최백문 | |  |
| 조문아 | |  |
| 차은복 | |  |
| 황주복 | | 황주복 |
| | [Redac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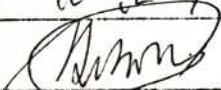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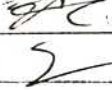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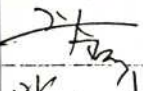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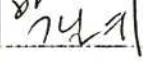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이혜심 | | |
| 유진 | | |
| 배기복 | | |
| 승순옥 | | |
| 양임자 | | |
| 정선묘 | | |
| 김성미 | | |
| 김연 | | |
| 김길관 | | |
| 백영희 | | |
| 황수진 | | |
| 김형진 | | |
| 정승경 | | |
| 윤순영 | | |
| 최연희 | | |
| 시선영 | | |
| 박병숙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정경임 | [Redacted] | 정경임 |
| 김정심 | | 김정심 |
| 연충일 | | 연충일 |
| 권용환 | | 권용환 |
| 복상늘 | | 복상늘 |
| 박수자 | | 박수자 |
| 김연경 | | 김연경 |
| 최미성 | | 최미성 |
| 최승진 | | 최승진 |
| 양정자 | | 양정자 |
| 이혜숙 | | 이혜숙 |
| 손관심 | | 손관심 |
| 곽복순 | | 곽복순 |
| 진혜숙 | | 진혜숙 |
| 정미순 | | 정미순 |
| 이정면 | | 이정면 |
| 이성애 | | 이성애 |
| 김미애 | | 김미애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박미자 | |  |
| 김희중 | | 영희 |
| 백영미 | | 영숙 |
| 김영숙 | | 민숙 |
| 윤선옥 | | 羅 |
| 조미숙 | |  |
| 최미라 | | 김영선 |
| 김명선 | | 김진숙 |
| 김영선 | |  |
| 김진숙 | | 박순옥 |
| 김은자 | |  |
| 박순옥 | | 김은영 |
| 신애자 | |  |
| 김은영 | |  |
| 정남숙 | |  |
| 서영숙 | |  |
| 오권정 | | |
| 주승자 | | |
| 박필례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권영석 | | 권영석 |
| 김광 | | 김광 |
| 오지철 | | 오지철 |
| 최유경 | | 최유경 |
| 김은아 | | 김은아 |
| 보영숙 | | 보영숙 |
| 소원영 | | 소원영 |
| 박가숙 | | 박가숙 |
| 이근원 | | 이근원 |
| 김민 | | 김민 |
| 박진호 | | P. J. H |
| 이흥현 | | 이 |
| 이서희 | | 이서희 |
| 이동철 | | 이동철 |
| 윤금녀 | | 윤금녀 |
| 김정순 | | 김정순 |
| 배미자 | | 배미자 |
| 김수경 | | 김수경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지동찬 | | 지동찬 |
| 연기남 | | 연기남 |
| 권성걸 | | 권성걸 |
| 박휘 | | 박휘 |
| 김병철 | | 김병철 |
| 이준희 | | 이준희 |
| 이민 | | 이민 |
| 이재홍 | | 이재홍 |
| 노상욱 | | 노상욱 |
| 신상진 | | 신상진 |
| 원영석 | | 원영석 |
| 김준근 | | 김준근 |
| 곽재홍 | | 곽재홍 |
| 김경아 | | 김경아 |
| 박진희 | | 박진희 |
| 이경주 | | 이경주 |
| 장조애 | | 장조애 |
| 박동권 | | 박동권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박원옥 | | 박원옥 |
| 김진희 | | 김진희 |
| 박세라 | | 박세라 |
| 임용화 | | 임용화 |
| 하태수 | | 하태수 |
| 박수용 | | 박수용 |
| 김흥진 | | 김흥진 |
| 김동수 | | 김동수 |
| 이승호 | | 이승호 |
| 정은희 | | 정은희 |
| 김성희 | | 김성희 |
| 김현영 | | 김현영 |
| 김구연 | | 김구연 |
| 김승호 | | 김승호 |
| 박춘자 | | 박춘자 |
| 유선복 | | 유선복 |
| 윤영희 | | 윤영희 |
| 윤미진 | | 윤미진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정리남 | | 정리남 |
| 정승영 | | 정승영 |
| 정철호 | | 정철호 |
| 이관수 | | 이관수 |
| 지경화 | | 지경화 |
| 강유영 | | 강유영 |
| 이진숙 | | 이진숙 |
| 황등산 | | 황등산 |
| 최은문 | | 최은문 |
| 박경은 | | 박경은 |
| 박수경 | | 박수경 |
| 김미숙 | | 김미숙 |
| 김정환 | | 김정환 |
| 배생기 | | 배생기 |
| 이은주 | | 이은주 |
| 김민우 | | 김민우 |
| 장기영 | | 장기영 |
| 주연진 | | 주연진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김혜영 | | (B) |
| 최정아 | | (4) |
| 신완순 | | (신완순 43) |
| 이승영 | | 19 136 14.11 |
| 송기문 | | 송기문 |
| 김경화 | | 김경화 |
| 최호성 | | (최호성 23.11.17) |
| 이정석 | | (이정석) |
| 김종식 | | 김종식 |
| 김현영 | | 김현영 |
| 최영주 | | (최영주) |
| 장부호 | | 장부호 |
| 김예라 | | 김예라 |
| 김민호 | | 김민호 |
| 김민우 | | 김민우 |
| 이소희 | | 이소희 |
| 박영호 | | 박영호 |
| 김연남 | | 김연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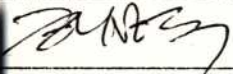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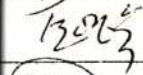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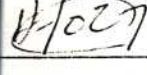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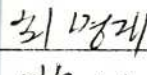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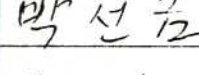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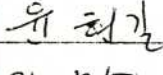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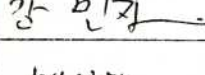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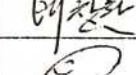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유세익 | | 유세익 |
| 최석우 | | 최석우 |
| 서화순 | | 서화순 |
| 이훈용 | | 이훈용 |
| 권인영 | | 권인영 |
| 최명아 | | 최명아 |
| 신영희 | | 신영희 |
| 구진희 | | 구진희 |
| 천영애 | | 천영애 |
| 김미숙 | | 김미숙 |
| 이연숙 | | 이연숙 |
| 변은령 | | 변은령 |
| 이승문 | | 이승문 |
| 김영리 | | 김영리 |
| 박서연 | | 박서연 |
| 김현영 | | 김현영 |
| 이희주 | | 이희주 |
| 박혜숙 | | 박혜숙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정연희 | | 정연희 |
| 박정희 | | 박정희 |
| 공창근 | | 공창근 |
| 곽영호 | | 곽영호 |
| 백문아 | | 백문아 |
| 이현주 | | 이현주 |
| 지인숙 | | 지인숙 |
| 곽미경 | | 곽미경 |
| 이진우 | | 이진우 |
| 윤강 | | 이윤강 |
| 강영희 | | 姜永姬 |
| 김정옥 | | 김정옥 |
| 김갑연 | | 김갑연 |
| 김민우 | | 김민우 |
| 임명순 | | 임명순 |
| 김영희 | | 김영희 |
| 고점순 | | 고점순 |
| 최혜민 | | 최혜민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최희주 | |  |
| 계경애 | |  |
| 송영숙 | |  |
| 문기환 | |  |
| 최병두 | |  |
| 김영옥 | |  |
| 소원영 | |  |
| 최병래 | |  |
| 박선금 | |  |
| 유희길 | |  |
| 강민자 | |  |
| 배정환 | |  |
| 이우석 | |  |
| 박현아 | |  |
| 이정숙 | |  |
| 김민옥 | |  |
| 신미옥 | |  |
| 김기주 | |  |

한대화

김성민

최진숙

권현기



김성민
최진숙

권현기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이창희 | [Redacted] | [Signature] |
| 류현우 | | [Signature] |
| 신인하 | | [Signature] |
| 수은옥 | | [Signature] |
| 엄연자 | | [Signature] |
| 이이관 | | [Signature] |
| 최은주 | | [Signature] |
| 강이애 | | [Signature] |
| 황은주 | | (한) |
| 이혜경 | | 이혜경 |
| 신상숙 | | (S) |
| 한연자 | | [Signature] |
| 최정아 | | [Signature] |
| 최성희 | | (정성희) |
| 정정희 | | (정정희) |
| 최유영 | | [Signature] |
| 서필자 | | [Signature] |
| 김민 | | [Signa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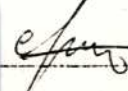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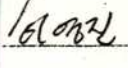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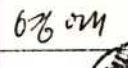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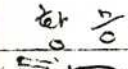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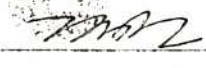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유정현 | [Redacted] | |
| 김리자 | | |
| 박성우 | | |
| 김진호 | | |
| 정광우 | | |
| 최기원 | | |
| 전택서 | | |
| 이태연 | | |
| 이승주 | | |
| 김경진 | | |
| 이순화 | | 이순화 |
| 신현호 | | |
| 김홍섭 | | |
| 김일현 | | 김일현 |
| 김흥화 | | 김흥화 |
| 양예진 | | 양예진 |
| 박승용 | 박승용. 박자희 | |
| 박자희 | 박자희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권영진 | | |
| 권혁들 | | |
| 이아우 | | |
| 서호관 | | |
| 박찬석 | | |
| 이선매 | | |
| 최천남 | | |
| 조현국 | | |
| 홍종원 | | |
| 반응 | | |
| 김채신 | | |
| 강연범 | | |
| 이래 | | |
| 김옥자 | | |
| 김종문 | | |
| 송봉식 | | |
| 최정아 | | |
| 동지윤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이재영 | [Redacted] |  |
| 이명진 | |   |
| 이명애 | |  |
| 강봉규 | |  |
| 윤석민 | |  |
| 강일규 | |  |
| 함승미 | |  |
| 이도복 | |  |
| 김민준 | |  |
| 조평민 | |  |
| 이영환 | |  |
| 조광우 | |  |
| 서남범 | |  |
| 이기수 | |  |
| 최재래 | |  |
| 김홍규 |  | |
| 맹기순 |  | |
| 신준민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최혜남 | [Redacted] | [Signature] |
| 유성택 | | [Signature] |
| 조리리 | | [Signature] |
| 이연화 | | [Signature] |
| 김홍희 | | [Signature] |
| 교원숙 | | [Signature] |
| 김원섭 | | [Signature] |
| 이광홍 | | [Signature] |
| 유영숙 | | [Signature] |
| 강근화 | | [Signature] |
| 이경애 | | [Signature] |
| 조영남 | | [Signature] |
| 강서영 | | [Signature] |
| 최광로 | | [Signature] |
| 이재우 | | [Signature] |
| 표상임 | | [Signature] |
| 김형동 | | [Signature] |
| 김정리 | | [Signature]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신영애 | | |
| 정릉기 | | |
| 김모숙 | | 김모숙 |
| 김희순 | | 김희순 |
| 김동희 | | |
| 김동영 | | |
| 백남홍 | | |
| 유기순 | | |
| 유배근 | | |
| 장해순 | | 장해순 |
| 김영간 | | 김영간 |
| 김명옥 | | 김명옥 |
| 기호진 | | |
| 김성영 | | 김성영 |
| 박선미 | | 선미 |
| 박서주 | | |
| 소귀영 | |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유세득 | | 유세득 |
| 최신 | | 최신 |
| 서희 | | 서희 |
| 이훈 | | 이훈 |
| 김진영 | | 김진영 |
| 최명아 | | 최명아 |
| 신영 | | 신영 |
| 구진희 | | 구진희 |
| 천명 | | 천명 |
| 김매 | | 김매 |
| 이영숙 | | 이영숙 |
| 변은진 | | 변은진 |
| 이승문 | | 이승문 |
| 김영리 | | 김영리 |
| 박서연 | | 박서연 |
| 김현영 | | 김현영 |
| 이영주 | | 이영주 |
| 박태수 | | 박태수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서명부

| 이름 | 주소 | 서명 |
|-----|--------------------|-------------|
| 정연희 | [Redacted Address] | [Signature] |
| 박진희 | | [Signature] |
| 공창근 | | [Signature] |
| 김영준 | | [Signature] |
| 백문아 | | [Signature] |
| 이현주 | | [Signature] |
| 지인숙 | | [Signature] |
| 김미경 | | [Signature] |
| 이진우 | | [Signature] |
| 윤강 | | [Signature] |
| 강영희 | | [Signature] |
| 김영옥 | | [Signature] |
| 김갑연 | | [Signature] |
| 김민우 | | [Signature] |
| 임영순 | | [Signature] |
| 김영희 | | [Signature] |
| 고점순 | | [Signature] |
| 정혜민 | | [Signature]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제7차 대표회의

일시: 1994년 4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1. 참석자 확인
2. 개회
3. 제6차 대표회의 결과
4. 회계보고
5. 안건토의
 - 1) 토론회 행사 평가
 - 2) 재정사업에 관한 건
 - 3) 5월 사업
 - 4) 전문가 모임 구성안에 대한 검토

6. 기타
7. 폐회

<제6차 대표회의 결과>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대표회의에서는 주로 4월 11일의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의논하였습니다. 토론회 준비 사항에 대한 점검들을 하여 주최, 후원단체, 발제자, 토론자, 사례발표자 교섭에 관한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고, 다시 자료집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또, 자료집은 가급적 빨리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두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각별히 홍보를 위해 신경 쓸 것과 동원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4월 1일부터 박래군 총무가 상근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행사 평가안>

1. 토론회 진행과 내용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등의 주최 단체와 후원 단체들

의 회원,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여서 약 3시간 가량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대책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했습니다.

행사는 박래군 총무의 사회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선호 변호사의 개회인사, 발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토론자의 발언, 토론, 박정기 대표의 폐회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해철 변호사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 개인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범죄인 고문을 현행 법제도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 부정, 고소의 실효성, 변호인의 접견권의 활용, 증거의 확보, 시효의 문제 등에 한계가 있고,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도에서는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문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고문의 무감각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 고문후유증은 신체적인 것으로는 각종의 통증이 있고, 정신적인 후유증이 아주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다른 나라의 조사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고문후유증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고문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하고, 고문을 자행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료인은 절대로 고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동시에 고문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고문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종경씨 부인과 강환웅씨 누님은 그동안 겪었던 가족과 본인들의 고통을 말하면서 "선량한 시민에게 가해졌던 고문과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고문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간 참았던 설움에 복받쳐 제대로 말씀을 잊지 못해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국제엠네스티의 12단계 고문방지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촉구하였고,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띤 법이 없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리서비스체제, 사회재활 서비스체제의 도입, 민간 차원의 전문가들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벌일 것과 고문백서의 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우섭 민주당 정책실장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문 금지와 고문후유증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법이 제정되기 위한 제도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 성과와 한계

(1) 토론은 워낙 생소한 문제가 되어서인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주제를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쟁점이 될 사항들을 미리 발제자, 토론자와 함께 준비하였다면 훨씬 잘 도리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진지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고문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의미는 얻을 수 있습니다.

(2) 자료집은 110쪽의 분량에 발제자들의 발제문, 오완호 사무국장의 토론자료, 15건에 이르는 고문후유증 사례, 유엔고문방지협약, 고문후유증 관련 외국자료, 문국진씨 소송자료, 신문자료 등을 실어 고문후유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발제문이 도착하고, 시간에 쫓겨 자료집을 입력, 편집하느라고 정확하게 교정을 보지 못해 특히 발제문에서 오자가 많이 났습니다.

(3) 애초 목적성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우리도 행사 내용의 내용에 대해 열거하고는 있었어도 그 내용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행사에서 그 목적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4) 홍보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수단은 안내장의 발송과 신문광고, 그리고 전화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5) 후속작업과의 연계 부족등의 문제로 거의 관심있는 일부인사의 참여로 폭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가져서 이 행사를 통한 고분과 고분후유증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행사로는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5월 사업 계획>

1. 하루주점- 5월 연세대에서 있는 대동제 장터를 연세대 철학과 학생회와 함께 하는 것과 연세대내 장소를 빌려서 시행하는 것을 같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피해자 가족 청와대 등 집단 탄원- 5월말 임시국회의 소집에 맞춰서 임시국회에서 유엔고문 방지협약의 유보없는 비준을 요구하고, 청원 건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와 각 당에 촉구하는 대표단 파견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청와대 집단 탄원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해도 임시국회에 맞추어서 청와대에 그전 국회청원 취지의 내용으로 탄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여론 형성이라는 점과 피해자 가족의 낮은 수준의 연대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3. 회원 확보와 자위봉사자 확보를 위한 사업(생략)

청원제출용지

수신: 국회의장

제목: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지
귀 대책 촉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청원의견소개서 부
2. 청원서 3부
3.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지를 위한 대책 촉구 서명부 3부

끝.

청원자(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 5)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대표단 4인

성명 박정기(인) 서준식(인)외 인(법인)
인재근(인) 최의팔(인)

소개의원(대표) (인)외 인